

2016 10월 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 거주지 수호 선언문

싱글로벌 경제의 토대인 양극화로의 투기자본은 도시에서 성장엔진을 확보한다.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도시가 상품화 되어 자본축적의 욕구대상이 되어왔는지 드러내지 않기위해 공식의제는 불가피한 도시화에 근거하게 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더 분열되고 불공평한 도시에 살게하여 결국 가부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외국인 혐오 시스템이 불러오는 구조적인 폭력을 복제하게 한다. 이러한 모델에서 공공복지로의 접근은 권리라기 보다는 특권이 되고만다.

동시에 농어촌 지역은 잊혀짐으로써, 이곳에 살고 있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게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직접 통제하고 자신들의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토지를 둘러싼 갈등들은 첨예화되며, 이들 토지를 무단사용하여 사업을 할수 있는 권력이 있는 이들과 이러한 도용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사이의 갈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배적인 도시화 모델에 의해 창출되어 부양된 성장은 도시안에 광대한 불평등을 만들어낼뿐만 아니라 문명화라는 프로젝트로 보다더 많은 공동체와 지역주민들의 영토를 도용하고 있다. 이로인한 주요 희생자들은 바로 원주민들과 농민, 양치기, 더 나아가 도시확대의 메가프로젝트, 대규모 도로확장, 많은 다른 위협을 동반하는 착출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다.

주민 추방과 이주 위기는 현재진행중인 기후변화와, 현존하는 발전모델을 널리 알리고 있는 강대국및 초국가적인 기업들이 부추기고 있는 자원확보 전쟁으로 보다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자연, 동식물, 일반 주민들에 심각한 결과를 불러와 전 지구적인 기후현상을 초래한다. 특히 가장 취약한 존재들에게 더욱 심각하다. 우리들, 저항의 목소리는 문화적 균질성에 집착하지 않고, 권위의 종속, 배제 및 의존에 근거하지 않은 서로 다른 토지구역 간의 상호관계를 방어한다. 이때문에 이 생산-소비모델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재래시장과 지역 경제사이클을 활성화하고 먹거리 자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작금의 도시화 모델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발로이자 세계인구의 단 1%에게만 혜택이 가는 배타적이고 터무니없는 형태이다. 이에 직면하여 우리는 거주지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통해 우리의 토지를 방어하고자 하는 투쟁과 신자유주의 흐름에 저항하는 투쟁, 강제퇴거와 약탈에 저항하는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인권과 땅, 물, 거주지, 도시, 비도시지역에 대한 권리, 이뿐만아니라 소유물의 사회적 기능과 거주지의 사회적 생산력에 대한 우리의 권한을 회복해야한다. 우리의 기본 거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저항에 결속하여 지역에서 국가로, 전세계로 확대하는 의사결정의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땅을 방어하고자 한다.

유엔 인간거주계획(UN-Habitat)의 신 도시화 의제라 불리는 문건이 주민들의 뒷전에서 비밀리에 군사기지에서 작성되었는바, 전세계 35개 국가의 거주민들, 공동체들은 완전한 자치와 다양한 성정체성,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와 지역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나서고자 한다. 이는 또한 우리 신체에 대한 자주권과 안위에 대한 공동관심에 근거하기도 한다. 비록 보이지않아도 이 지구위에 거주하는 99%의 사람들은 다층적인 삶의 형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주장하면서 다들 목소리를 높여 전지구적인 개발계획으로부터의 배제, 퇴거, 저항운동의 범죄화에 저항해나가야한다. 세상의 중심에서 세계 거주민들을 위한, 이들에 의한 통합 거주권 의제를 구축해나가는데 앞장설 것이고, 기타 대중활동과 강제퇴거에 관한 국제재판소를 강화해나갈것이며, 우리의 땅을 수호하는 사회운동의 융합을 조성해나갈 것이다.